

우연성 갑상선종양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 세포검사의진단적 가치

고신의대 내과학교실, 방사선학교실¹⁾, 해부병리과²⁾
최영식^{*}, 박희백, 권기범, 김민대, 박요한, 오경순¹⁾, 천봉권²⁾

최근 컴퓨터 단층촬영술과 자기공명영상(MRI) 및 고해상능 초음파 등의 진단기기의 사용의 증가로 비특이성 갑상선 결절인 우연성 갑상선종양이 흔히 발견되는데 이러한 결절은 대부분 크기가 1 cm 이하이나, 드물게 크기가 2 cm 이상이라도 갑상선의 심부에 위치하여 전문가들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갑상선 결절의 진단에 있어서 세침흡인세포검사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정확한 검사이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임상적으로 촉진되는 결절에 대한 세침흡인세포 검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우연성 갑상선결절에 대한 세침흡인세포 검사에 관한 보고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고해상능 초음파 검사시 우연히 발견된 갑상선결절의 진단에 고해상능 초음파 유도하의 세침흡인세포 검사의 임상적 유용도를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자들은 1996년 6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이학적 검사상 갑상선이 커져 있는 경우, 만성적 변화가 있거나 표면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과거에 갑상선 수술 병력이 있는 경우 및 목의 다른 부위에 전이성 병변이 있는 경우 잠재적 갑상선 암을 발견 및 경부의 비갑상선질환을 진단하기위해 고해상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던 환자 중 이학적으로 촉진되지않는 갑상선결절에 대해 고해상능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세포 검사를 시행하였던 환자 161 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결절의 숫자는 평균 1.7개이었으며, 크기는 0.5-1.3cm 이었고 평균 0.96cm이었다.
- 2) 총 161례중 19례(11.8%)에서 악성결절로 진단되었으며, 이 중 6례는 과거에 갑상선엽절제술 또는 아전절제술 후 추적검사중 우연히 발견된 결절이었다.
- 3) 단일결절은 88례, 2개이상의 다발성 결절은 73례였고, 단일결절에서의 악성율은 13.6%(12/88), 다발성결절은 9.0%(7/77) 였다.
- 3) 초음파유도하 세침흡인세포검사의 민감도는 93.3% 였으며, 검체획득율은 90.1%였다.

이상의 결과 우연성 갑상선종양에 대한 고해상도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세포 검사는 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이 어려운 결절의에도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술후에 발견된 결절의 진단에도 유용하였다.

갑상선 안구돌출증에 대한 상악동 경유 및 비내시경술을 이용한 안와 감압술 5예

경희의대 내과 오승준*, 김성운, 양인명, 김진우, 김영설, 최영길
경희의대 이비인후과 조중생

갑상선 기능 항진증시 안구병변은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으며, 이중 안구돌출증은 외관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노출성 각막염이나 각막 궤양 등을 유발하여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안구돌출증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방법으로는 상악동을 경유하여 안와의 내하벽을 제거해 주는 방법과 비내시경을 이용한 안와의 내측벽과 안와하벽을 제거해 주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96년 7월부터 98년 2월까지 경희의료원 내과에서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단 치료 중이던 환자 중 안구돌출증이 안병증으로 합병된 환자 5명을 대상으로 본원 이비인후과로 전과하여 상악동 경유 및 비내시경술을 병용하여 안와 감압술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Case	Degree of exophthalmos (mm), Rt		Degree of exophthalmos (mm), Lt	
	Preop	Postop	Preop	Postop
M/16	19	15	20	15
M/47	18	15	18	16
F/54	21	17	21	17
F/38	17	14	17	14
F/20	19	16	21	17

결론적으로 상악동 경유 및 비내시경술을 이용한 안와 감압술로 갑상선 기능항진증에 의한 안구돌출증에 대해 만족할만한 감압효과를 얻었으며, 특히 이러한 수술적 방법은 심한 안구돌출증에 대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